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발행 국어(일본어)독본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송숙정\*\*

## 〈 Abstract 〉

###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Japanese Reader Published by the Chosun Governor-General

In this paper, in order to explore Japanese language reading books issued by the Chosun Governor-General during the Japanese rule period, we gathered information scattered in various places, including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the Diet Library, and gathered materials from gazettes of the Chosun Governor-General and newspaper articles of Donga Ilbo. Based on these materials, we classified the textbooks by time.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re were various schools and numerous textbooks in the secondary education level, compared to what is already known.

In particular, the reason why simplified schools and practical schools, which were not regular schools, were activated was due to Japan's colonial educational purposes of 'simplicity' and 'practical use', and it is revealed that a textbook for these schools was issued separately.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practical schools and practical training schools, as institutionalization of employment and wage discrimination by academic background, were the choice at a secondary educational level after ordinary schools in order to compensate for it. Meanwhil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second Korean education order changed the term of lessons to six years, ordinary schools still had the four-year system in the majority of regions. Reflecting this, readers of the national language specialized in the four-year system were issued for ordinary schools. As such, it is unveiled that various textbooks were issued by Governor-General of Korea depending o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colonial Korea.

Field : Japanese Education

Keywords : Chosun Governor's Office, Textbook publication, Japanese language school, Simple school, Business school

## 1. 서론

### 1.1 연구목적

최근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서 자행된 식민지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어교육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932)

\*\* 중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일본어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서지학적인 관점에서 당시 일본어교육에 사용된 교과서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에 어떠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식민지 언어교육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산재해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목록을 작성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누락된 자료가 많거나 조선어독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국어(일본어)독본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통학교 이외의 과정과 중등교육 과정에서 사용된 교과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학제를 검토하고 학제에 따른 교과서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어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1.2 선행연구

먼저 학제에 관한 연구로는 윤종혁(2008)과 강명숙(2010)이 있다. 윤종혁은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을 비교하며 일본이 조선에서 자행한 중등교육의 방침을 '실용'과 '간이'로 설명하며 중등교육의 설립은 될 수 있는 한 억제하고 각종 실업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음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강명숙은 일제강점기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한말의 학제부터 제1차 조선교육령 당시의 학제를 중심으로 학제 정착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한편, 송숙정(2018)은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의 중등교육 학제를 각 교육령기에 따라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중등교육 기관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허재영(2009)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편찬 실태에 관하여 고찰하였는데 전체적인 교과서 편찬에 관한 개요는 파악할 수 있으나 조선어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일본어교과서의 목록 등을 살펴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승구·박봉배(2001)에 의한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가 있으나 조선어과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로 국어독본에 관한 기록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의 교육정책 및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또한 일본어교육사연구회(1993)가 1993년에 실시한 보고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과 전쟁시기의 일본어 교육관계문헌에 관한 목록이 나와 있다. 이 보고서에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교과서에 관한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나 누락된 교과서가 많다. 본고에서는 일본어교육사연구회의 자료도 비교 고찰자료로 사용하였다.

이혜영(1998)은 『한국근대 학교교육 100년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학교제도와 식민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와 학생 및 학교 행정과 재정에 이르기까지 근대 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당시에 사용된 교과용 도서 일람이 기재되어 있어 본고의 목록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교과서에 관한 연구로 김순전(2010)은 2010년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초등교과서를 총 망라하여 원문과 번역본을 발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연구된 보통학교 이외의 간이학교와 중등교육 과정에 중점을 두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교과서를 고찰하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1) 일제강점기 국어독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본고에서는 교과서명 등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국어(일본어)독본의 표기를 이하에서는 국어독본으로 통일한다.

### 1.3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각 시기별로 조선교육령 반포 후 개정된 학제를 확인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원문을 탐색하여 판권지를 바탕으로 출판시기를 가늠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조선에서 사용된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와의 대조를 통해 목록을 재검토하며, 당시의 조선총독부 관보와 신문을 통해 발행 당시의 상황을 고찰한다.

## 2. 일제강점기 학제

일제강점기 조선의 학제는 '선택의 다양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조선교육령이 반포되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기관에 각종 규칙과 규정을 통해 교육의 상제가 전달되지만 실질적인 교육의 장에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우선시 되었다. 즉 서울을 비롯한 도시와 지방과의 격차가 심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시행령을 반포하여도 지방에 이르기까지 끌고루 교육의 상황이 개정되지 못하고 시행령이 시효를 거두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규칙과 규정에는 '지방의 사정에 따라'라는 문항이 포함되어 그곳의 사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연한에 있어서도 6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지방의 사정에 따라 4년, 5년으로 할 수 있다' 등의 예외조항을 두어 지역에 따른 형편을 감안하고 인정하였다. 조선교육령에서 정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다음의 <표1>과 같다. 당시에는 도(道)나 부(府)의 비용이 아닌 개인의 비용으로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sup>2)</sup>와 사범학교도 존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관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1> 일제강점기 조선의 학제<sup>3)</sup>

시기 학교급	일제강점기			
	1차 교육령기 (1911-1922)	2차 교육령기 (1922-1938)	3차 교육령기 (1938-1943)	4차 교육령기 (1943-1945)
초등교육	보통학교(4) <sup>4)</sup>	보통학교(6) <sup>5)</sup> 부설학교, 간이학교(2)	소학교(심상소학교)(6) 국민학교(6)	국민학교 초등과(6)
중등교육	고등보통학교(4) 여자고등보통학교(3) 실업학교(2-3)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간이실업학교 <sup>6)</sup> 사범과(1)	보통학교 고등과(2) 고등보통학교(5) 고등보통학교 보습과(2) 여자고등보통학교(4) 여자고등보통학교보습과(1) 실업학교(3-5) 실업보습학교(2-3) <sup>7)</sup>	고등소학교(2) 중학교(5) 고등여학교(5,4,3) 실업학교(5-3) 실업보습학교(3-2) 사범학교(5, 여자는4) 사범학교 연습과(2)	국민학교 고등과(2) 중학교(4) 고등여학교(4) 실업학교(4) 실업보습학교(2-3) 사범학교(심상과5(여4), 예과2-4)

2) 조선에는 1908년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립학교만 2,250개에 달하였고 학생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사립학교로 엄청난 근대교육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백순근(2003) 『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p.25의 표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편집 함.

		사범학교(보통과5, 연습과1) <sup>8)</sup>		
고등교육	전문학교(3-4)	전문학교 대학	전문학교(3-4) 대학(예과2, 학부3-4, 대학원2)	사범학교(본과)(3) 전문학교(3년 이상) 대학(예과2, 학부 3-4)

제1차 조선교육령 반포 당시 초등교육은 4년제 보통학교로 실시되었다. 일본 본토가 당시 심상소학교 6년 과정에 고등소학교 2년의 과정을 초등교육으로 삼은 것에 비하면 매우 모자라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1912년 4월 개최된 공립보통학교 교장 강습회에서 우사미 당시 내무부 장관이 행한 훈시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보통학교는 그 목적이 결코 졸업생들을 중학, 대학 등 계급 향상을 쫓아 학술연구를 더욱 추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실무에 종사하여 성실, 근면, 노역을 싫어하지 않고 국어에 능통하며, 상당한 정도의 실제적인 지식, 기능을 지닌 총량한 신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의 초등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에서 6년으로 개정되지만 지역에 따라 4년 또는 5년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통학교가 여전히 4년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입학자격을 6년제 보통학교 졸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조선인들의 일반계 중등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억제와 대체수단으로 추진된 것이 실업교육과 간이학교 제도의 설치다.

실업교육을 중등단계 학교교육 안으로 포섭하여 중등교육의 설립은 될 수 있는 한 억제하고 각종 실업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마저 실업교육<sup>9)</sup>은 간이한 형태의 실업학교인 실업보습학교의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실업학교는 보통학교 6년에 이어지는 3-5년의 중등학교로 하고 실업보습학교는 4년제 보통학교 수료자들을 수용하는 2년제 직업교육 기관이 되었다. 이혜영(1998)의 연구를 보면 당시에 실업학교와 실업보습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일제가 학력에 따른 고용, 임금상의 차별을 제도화 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통학교 이후의 중등과정에 관한 실질적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본어를 확대 보급하고 초보적인 직업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1930년대에 이르러 간이학교 제도를 설치하였다. 간이학교는 수업연한 2년, 입학연령은 10세를 표준으로 학생정원은 학년 당 40명씩 총 80명으로 운영된 비정규의 단기 초급교육기관으로 농촌 간이학교와 도시 간이학교의 두 종류가 있었다.

이후, 제3차 교육령에 의해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바뀌고,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1년에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명하였다.

4) 내지준거주의 근거하여 1920년 1차 개정에 의해 4년에서 6년으로 수업연한이 늘어남  
 5) 지방사정에 따라 4.5년제를 택할 수 있었다.  
 6) 야간이나 일요일, 여름과 겨울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하였다.  
 7) 4년제 보통학교 수료자를 위한 학교  
 8) 1933년 연습과가 2년으로 연장됨(여자는 보통과4, 연습과2년으로 됨)  
 9)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2년에는 전체 중등학교수는 63교, 학생수는 3,282명이었다. 이 중 일반계인 고등보통학교의 학생수는 전체 중등학생의 약 38%인 1,257명이고 실업학교, 실업보습학교의 학생수는 전체의 62%인 2,025명이었다.(이혜영(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p.45)

제4차 교육령에 의해 초등교육 기관인 국민학교는 6년 과정의 초등과와 2년 과정의 고등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3. 조선총독부 발행 국어독본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각 시기별 교과서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교과서명과 판권기재사항, 소장처를 중심으로 기재하였다.

#### 3.1 제1차 조선교육령기 (1911.8-1922.1)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고 국어독본의 편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관계로 1907-1908년에 학부국에서 편찬한 『학부편찬 보통학교 학도용 일어독본』의 일부를 수정하여 『정정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으로 발행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1912년 12월부터 『보통학교 국어독본』의 새로운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전체 8권에 대한 편찬이 모두 끝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13년 1월에도 『정정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의 제6권이 발행되고 있었으므로 4학년의 경우 7권과 8권이 발행되는 1915년까지 『정정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당시 교과서 편찬과 보급 문제가 심각하여 1913-1915년 사이에는 전국에서 두 교과서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표2〉 제1차 조선교육령기 국어독본 목록

학교과정	교과서명	권수	판권기재사항	소장처	비고
보통학교 (4년)	정정보통학교 학도용국어독본	1	1912년7월15일제5판발행 (1911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12년3월15일제4판발행 (1911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12년7월5일제5판발행 (1911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12년3월15일제4판발행 (1911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13년1월15일제6판발행 (1911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6	1913년1월15일제6판발행 (1911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7	1913년1월15일제6판발행 (1911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8	1913년1월15일제6판발행 (1911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보통학교 국어독본	1	1915년12월15일제7판발행 (1912년12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15년12월25일제6판발행 (1913년1월15일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10)
		3	1915년12월25일제6판발행 (1913년2월15일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4	1914년7월5일제3판발행 (1913년2월15일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5	1915년2월25일제3판발행 (1914년3월15일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6	1916년1월28일제3판발행 (1914년12월5일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7	1916년12월20일제3판발행 (1915년3월15일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8	1917년1월15일재판발행 (1915년10월15일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고등보통학교 (4년)	고등 국어독본	1	1916년2월25일제3판 (1912년3월23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13년1월31일재판 (1912년11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13년1월31일재판 (1912년3월23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13년1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13년4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6	1913년12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7	1914년3월15일재판 (1913년9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8	1914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개수)고등 국어독본	1	1921년3월25일발행 (1912년3월23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21년9월13일발행 (1912년11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21년3월25일발행 (1912년3월23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21년10월15일발행 (1913년1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22년3월20일발행 (1913년4월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권까지만 잔존
(고본)고등 국어독본	1-8	1913년-1914년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여자고등보통 학교(3년)	여자고등 국어독본	1	1920년3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20년3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21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21년10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22년3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실업학교 (2-3년)	실업학교 국어독본	1	1918년3월20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18년3월20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20년3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전문학교 (3-4년)	전문학교 국어독본	1	1917년6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17년7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17년7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한편,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는 고등보통학교용 교과서가 3종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판권지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용 시기를 유추해보면 1912년 3월 23일에 발행된 『고등국어독본』이 최초의 본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고본(稿本)’이 1913년에서 1914년 사이에 유통되었으며 1912년의 『고등국어독본』을 개수하여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고본으로 출판된 연유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의 편찬교과서 개요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10) 박영숙(2000)해제, 『普通學校國語讀本』, 福岡教育大學附屬圖書館藏

보통학교 교과서와 동시에 편찬이 시작되어 연락 상 유감이 없지 아니하다. 급속히 편찬하여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각종 사립학교에서도 겸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편성하므로 일시 고본으로 출판한다. 고본으로 출판하더라도 그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유명한 학자에게 편찬의 일부를 맡기거나 엄밀한 사열을 요청하고, 조선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각부 당국에 조회한다. 11)

-조선총독부(1917) “조선총독부 편찬교과서 개요”p.21

이러한 사항은 이해영(1993)의 연구에서는 1917년을 기준으로 고등국어독본(전체8권)과 여자고등국어독본(권1, 권2), 실업학교 국어독본(전체3권)의 기록만 남아 있다.

### 3.2 제2차 조선교육령기 (1922.2-1938.2)

제2차 조선교육령기는 1922년부터 1938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조선총독부에서 다양한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먼저, 보통학교 6년 과정에는 총 3종류의 국어독본이 편찬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 반포와 동시에 개정에 들어간 『보통학교 국어독본 권1-8』과 1930년에 개정이 시작된 『보통학교 국어독본 권1-12』와 1937년부터 개정이 시작된 『국어독본』이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반포에 의해 수업연한이 늘어나며 부족한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차용하였다. 이후 1930년에 새로이 12권을 발행하고 이를 다시 1937년부터 개정 발행하였다.

1930년에 발행한 『보통학교 국어독본 권1-12』와 1937년부터 개정이 시작된 『국어독본』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현시점에서 『국어독본』의 권8-10까지의 입수가 불가한 상황인데 권1-권7까지와 권12가 동일하고 권11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교교과서 명년이나 개정, 미룩미룩해 내년도 개정, 문제의 정가도 감하**

총독부교과서 개정은 금년사월로 개정기한이 끝나는 것도 있었음으로 벌써부터 그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사정으로 지연을 보게 되어 금년사월에 개정으로 보지 못하고 내년도부터 아래의 각종의 교과서만 개정하게 되리라하며 개정되는 동시에 현안으로 되어 있는 보통학교 교과서 정가 인하도 단행되리라라고 관측되는데 정가 인하에 대하여는 편집과로부터 인쇄회사에 대하여 그 인하를 교섭하리라더라.

보통학교용 -국어독본 권1

농업학교용 -국어독본 권1,권2

고등보통학교용-중등교육국어독본 권1

(동아일보 1929년 11월 13일자 2면-보교교과서 명년이나 개정-)

11) 본고에 인용되는 조선총독부 관보 및 각종 신문기사의 본문은 현대어로 번역하여 기재한다.

〈표3〉 제2차 조선교육령기 국어독본 목록1

학교과정	교과서명	권수	판권지기재사항	소장처	비고
보통학교 (6년)	보통학교국어독본	1	1923년12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판권지판독불가	이화여대중앙도서관	
		3	1923년5월10일번각발행 (1922년12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23년9월2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23년5월30일번각발행 (1923년1월1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6	1923년9월2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7	1924년1월31일번각발행 (1924년1월18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8	1924년8월31일번각발행 (1924년8월18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보통학교국어독본	1	1930년2월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30년9월1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31년3월28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37년8월28일개정번각발행 (1931년9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37년2월20일개정번각발행 (1932년1월2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번각발행본 있음
		6	1937년8월28일개정번각발행 (1932년9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번각발행본 있음
		7	1937년2월20일개정번각발행 (1933년3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번각발행본 있음
		8	1937년8월28일개정번각발행 (1933년11월1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번각발행본 있음
		9	1937년2월20일개정번각발행 (1934년3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번각발행본 있음
		10	1937년8월28일개정번각발행 (1934년10월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번각발행본 있음
		11	판권지없음	국립중앙도서관	
		12	1935년9월3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국어독본	1	1930년2월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37년8월28일개정번각발행 (1930년9월1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31년3월28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37년8월28일개정번각발행 (1931년9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37년2월20일개정번각발행 (1932년12월2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6	1937년8월28일개정번각발행 (1932년9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7	1937년12월20일개정번각발행 (1933년3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8-10	-	-	
		11	1938년2월28일개정번각발행 (1935년3월3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12	1937년8월28일개정번각발행 (1935년9월30일번각발행)	국회도서관	

위의 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보통학교 국어독본 권1-12』의 권1이 당시에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농업학교용 국어독본은 당시의 기사로 보아 개정된 것으로 보이나 잔존하는 자료가 없어 출판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한편, 위의 기사에는 개정과 동시에 정가 인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정가 인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교과서개편을 기회로 정가금 올릴 계획, 총독부의 교과서 개편을 기회로 정가의 일전 이상을 올리하고자해 서적인쇄의 역생시대**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교과서 개정은 학무국 편집과원의 노력으로 이전 교과서보다 현저한 개량을 보게 되어 내년 4월 신학기까지는 보통학교용 국어독본 권5 및 권6, 고등보통학교용 국어독본 권5 및 권1, 여자고등보통학교용 국어독본 권1 및 권2를 사용하게 하리라고 한다.

그런데 교과서 정가는 모든 물가가 저락하는 때임으로 당연히 시세에 순응하여 약간씩 감가하리라고 기대되었는데 교과서를 인쇄판매하는 조선서적인쇄 회사에서는 새로이 되는 교과서 내용이 폐지수도 약간 늘고 또 색쇄도 드는 것이 있다고 일전 이상씩 인상하리라고 하였으므로 학무국에서는 일본의 예를 들어 인상치 않기를 교섭중이나 회사가 특수회사인 만큼 편집과의 요망도 수포로 일전 이상의 증가를 보게될 형세에 있다.

(동아일보 1931년 11월 13일자 2면-교과서 개편을 기회로 정가금 올릴 계획-)

위의 기사로 보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개정기한이 만료되어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시에는 내용상의 변화는 물론 정가 개정도 함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의 중등과정 이후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제2차 조선교육령기 국어독본 목록2

학교과정	교과서명	권수	판권지기재사항	소장처	비고
보통학교 (4년)	보통학교국어독본 (4년제)	5	1933년2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번각발행본 있음
		6	1937년9월18일개정번각발행 (1933년10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번각발행본 있음
		7	1937년2월20일개정번각발행 (1934년3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번각발행본 있음
		8	1937년9월20일개정번각발행 (1934년10월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간이학교 (2년)	간이학교국어독본	1	-	-	
		2	1935년9월3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	-	
		4	1936년10월31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고등보통 학교 (5년)	(신편)고등국어독본	1	1924년1월31일번각발행 (1924년1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24년8월20일번각발행 (1924년8월10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24년2월28일번각발행 (1924년2월18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24년8월31일번각발행 (1924년8월20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23년2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6	1922년9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7	1923년9월15일번각발행 (1922년12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8	1923년9월25일번각발행 (1923년9월18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9	1923년2월25일발행	국립중앙도서관	
		10	1923년9월3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중등교육국문독본	1	1930년3월31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2	1930년10월25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3	1931년3월31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4	1931년9월25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5	1932년3월3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6	1932년9월25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7	1933년1월25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8	1933년9월20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9	1937년3월31일개정번각발행 (1934년2월15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10	1934년9월30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여자고등 보통학교 (4년)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	1	1926년9월25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2	1923년9월30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3	1923년2월23일번각인쇄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관권지혜순
		4	1923년9월30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5	1924년3월15일번각발행 (1924년3월5일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6	1925년3월28일번각발행 (1922년9월25일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7	1925년2월20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8	1923년9월30일번각발행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중등교육여자국문독본	1	1932년2월2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32년9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33년3월28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33년10월1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34년3월1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6	1934년9월3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7	1935년3월31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8	1935년10월8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농업학교	농업학교용국어독본	1-2	1929년11월13일기사	동아일보	
실업학교 (3-5년)	실업학교국어독본	1-3	1925년2월14일 3748호 3-4면	조선총독부관보	
실업보습 학교 (2년)	실업보습학교 국어독본	1	1931년2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31년2월2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농업보습학교용 국어독본	전	1937년5월15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표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보통학교의 경우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수업연한이 6년으로 늘어났지만 현실적으로는 4년제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용 보통학교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1933년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어 있다.

일면일교제에 의한 신설보통학교는 전부 4년제이고, 일면일교제 실시 이전의 보통학교 중에도 4년제가 많은데 교과서는 6년제 보통학교용을 그냥 사용하여 왔으므로 교수상 여러 가지 결함이 많았으므로 마침내 4년제 보통학교용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개정내용은 1,2년까지는 6년제 교과서를 그냥 쓰고, 3,4년용만 편찬하는데 금년 4월에 간행되는 교과서는 수신서, 조선어독본, 국어독본이고, 내년에는 3년용 이과서와 전기 각 독본의 4년용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3년 1월 10일자 조간신문 2면-4년제 보통학교 교과서 편찬중-)

또한 이 시기에는 간이학교용 교과서가 발행되었으며, 간이학교 교과서에 관한 사항은 1935년 3월 30일과 11월 26일자 동아일보 석간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조선 간이학교의 교과서는 아직까지 보통학교 교과서로 써왔으나 금년부터는 이 간이학교의 교과서를 전부 개정하기로 하여 그 개정 원고가 탈고되었으므로 방금 인쇄에 부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신, 국어, 조선어 등은 이미 인쇄가 완료되었고, 산술교과서는 4월 3,4일 경에 인쇄가 끝나리라 한다. 그리하여 이 개정된 새 교과서는 금년 새학기부터 일제히 사용할터인데 그 중에서 국어와 산술은 종래의 보통학교 교과서보다 농촌 환경에 적합한 교재를 채택하였다하며 제일적으로는 각각 오만권씩을 발행하기로 책가격도 비교적 적게 할 예정이라 한다.

(동아일보 1935년 3월 30일자 석간신문 1면-간이학교 교과서개정-)

학무국에서는 고등보통학교와 보통학교, 간이학교의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개정 편찬하는 가운데 있거니와 명춘 새학기부터 새로이 개정 편찬한 것을 사용토록 할 것과 고등보통학교용의 수신 교과서 권2와 국어독본 권4, 조선어급한문독본 전권의 개정사용을 하기로 그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보통학교의 서방1년용과 간이학교의 산술과 국어독본 등도 모두 개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한다.

(동아일보 1935년 11월 26일자 석간1면 -명춘 신학기부터 개정교과서 사용-)

이 외에도 제2차 조선교육령기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발행된 교과서가 새로이 개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 중 고등국어독본과 여자고등국어독본의 신편이 발행되었다. 당시의 교과서발행에 관한 상황을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학교국어독본 권1, 권3, 권5(1,2,3학년 전기용)  
(신편) 고등국어독본 권5, 권7, 권9(제3,4,5학년용)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 권1, 권3, 권7(권5,6은 출판 끝남)

한편, 보통학교국어독본, 신편고등국어독본 및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의 짝수권은 1923년도 사용 시기까지 출판할 예정이라더라.

(동아일보 1922년 11월 17일자 2면)

이와 같이 하나의 교과서가 일정한 시기에 동시에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홀수와 짝수권으로 나누어 다가

오는 학기에 맞추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신 교육령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사항을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독부 신규교육령에 의하여 편찬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용 교과서가 본년도로서 대개 완성되어 구법령에 의한 교과서는 자연 폐책이 되는바 작년도에 발행한 신규교과서에 대한 폐책 약 일만오천원(삼천원)을 매입하였고 본년도 오월 삼십일을 기한으로 매입을 행하였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 보통학교국어독본 권7,8

일. 개수고등국어독본 권1,2,3,4

일. 여자고등국어독본 권5

물론 폐책 중에 회사취급의 인이 있는 것 및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은 폐책이라 할지라도 당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동아일보 1924년 6월 6일자 1면-폐책오만사천 매입종료 신고과서는 완성)

한편, 위의 <표4>에서 보면 제2차 조선교육령기의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 1922년부터 1929년까지는 『신편 고등국어독본』, 『신편 여자고등국어독본』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중등교육 국문독본』, 『중등교육 여자국문독본』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기사를 보면 위의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 중등교과서 정가를 감하, 구분가량을 내리게 되어 2월 1일부터 실시

총독부편찬 중등교육 교과서 전부 십육종 사십육책에 대하여 최하 4전 최고 6전 평균재래 정가에 대한 구분을 감하기로 되어 2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보통학교 아동용 교과서 전부에 대하여는 1929년 2월과 1930년 2월, 1931년 2월의 3회에 미치어 약간씩을 내리었으나 중등학교 교과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더니 이번에 문부성 중등교과서를 1932년부터 감가하게 되었으므로 이 정세에 순응하여 감가하기로 된 것이다. 각종 교과서별로 감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중등교육국어독본 권1부터 권4까지 62전을 57전으로, 신편고등국어독본 권7,8,9,10을 56전에서 51전으로,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 권3에서 권8까지 56전에서 51전으로, (중략)

개정 정가 시행은 2월1일부터인데 이전에 발행한 교과서로 이전 정가대로 있는 것도 2월 1일 이후에는 감소한 정가로 판매하기로 되었으므로 사는 사람은 주의함이 좋겠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2년 5월 24일자 2면-중등교과서 정가를 감하-)

즉,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1932년 당시 『중등교육 국어독본』과 『신편고등국어독본』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 또한 정가가 내려간 것으로 기사가 난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도 두 교과서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이해영(1998)의 연구를 보면 1937년에 실업보습학교 국어독본(권1,2)과 실업보습학교용 국어독본(전권)이 발행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잔존하는 자료가 없어 고찰이 불가능하였다.

### 3.3 제3차 조선교육령기 (1938.3-1943.2)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된 것은 1938년으로 이듬해인 1939년부터 교과서의 개정이 시작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초등교육 과정으로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바뀌면서 문부성 편찬 교과서로 통일하기로 하였으나 교과서 수급을 맞추지 못하여 저학년은 총독부 편찬으로 사용하고 고학년은 문부성 편

찬으로 동일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다.

**새 학기부터 새 교과서 사용, 총독부편찬과 문부성편찬 통일 혹은 분리개정**

새로된 교과서의 사용하려는 것은 국어는 종래의 보통학교이었던 소학교에 1,2,3학년의 교과서만 총독부 편찬으로 사용하고 4,5,6학년은 문부성편찬으로 동일하기로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제1권만이 신학기에 등장하고 2권은 가을에 나오기로 되었다.

(동아일보 1939년 1월 25일자 조간 2면 -새 학년부터 새 교과서 사용-)

제3차 조선교육령기의 국어독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제3차 조선교육령기 국어독본 목록

학교과정	교과서명	권수	판권지기재사항	소장처	비고	
심상소학교 (6년)	초등국어독본	1	1939년3월10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39년9월10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40년5월31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40년9월28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41년3월31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6	1941년9월20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소학교어독본심상과용 문부성저작 조선총독부발행	7	1940년11월15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8	1936년8월12일발행	개인소장	문부성발행본	
		9	1942년9월15일제4판발행 (1940년1월31일변각발행)	국회도서관		
		10	1942년5월25일제3판발행 (1940년9월30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11	1939년12월25일변각발행 (1939년9월13일수정발행)	국립중앙도서관		
		12	1938년8월12일발행	개인소장	문부성발행본	
간이학교 (2년)	초등국어독본 간이학교용	3	1940년6월30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40년11월28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중학교(5년)	중등국어 남자용	1	1943년3월28일2판발행 (1941년3월31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42년3월30일2판발행 (1941년9월30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42년3월29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4	1942년9월30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	1943년3월28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고등여학교 (5년)	중등국어 여자용	1	1941년3월31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	1941년9월30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	-		
		4	-	-		
		5	1943년3월28일변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표를 살펴보면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에서 사용된 『중등국어 남자용』과 『중등국어 여자용』은 제3차 조선교육령기부터 발행되어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 이르기까지 발행,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3.4 제4차 조선교육령기 (1943.3-1945.8)

제4차 조선교육령기의 초등교육은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며 이에 따른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래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기 1년전인 1942년부터 교과서 개정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초등교육용 교과서에 한정된 것으로 초등교육용 국어독본은 5기에 걸쳐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lt;표6&gt; 초등교육용 국어독본 편찬상황

교육령기	시기	발행시작 년도	교과서 명칭	권 수
제1차 교육령기	제1기	1911년	『정정보통학교학도용국어독본』	1-8권
		1912년	『보통학교국어독본』	1-8권
제2차 교육령기	제2기	1923년	『보통학교국어독본』	1-8권 (조선총독부)
			『심상소학교국어독본』	9-12권 (일본문부성)
	제3기	1930년	『보통학교국어독본』	1-12권
		1937년	『국어독본』	1-12권
제3차 교육령기	제4기	1939년	『초등국어독본』	1-6권 (조선총독부)
			『소학교국어독본』	7-12권 (일본문부성)
	제5기	1942년	『요미카타』	1-4권
		1942년	『초등국어』	5-12권

앞서 언급한 제2차 교육령기에 3차례에 걸쳐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다 상세히 구분하면 제2기와 제3기에 나누어 초등교육용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4차 조선교육령기의 중등교육용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 제4차 조선교육령기 국어독본 목록

학교과정	교과서명	권수	판권지기재사항	소장처	비고
국민학교 초등과(6년)	요미카타	1년상	-	-	
		1년하	1942년8월31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2년상	1942년12월18일제2판발행	-	
		2년하	1942년9월2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초등국어	3년상	1943년1월15일번각발행	국회도서관	
		3년하	1943년9월10일번각발행	국회도서관	
		4년상	1943년3월25일번각발행	한국교육개발원	
		4년하	1943년9월20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5년상	1943년2월28일번각발행	국회도서관	
		5년하	판권지판독불가	한국교육개발원	
		6년상	1944년2월10일번각발행	국회도서관	
6년하	1944년9월15일번각발행	국회도서관			
국민학교 고등과(2년)	고등과국어 문부성저작조선총독부 발행	1-4	1944년3월22일발행	조선총독부관보	
실업학교(4)	중등국어실업학교용	1	1943년 1월 25일자	조선총독부관보	
		2	1943년3월28일번각발행	국립중앙도서관	
		3	1944년 3월 29일자	조선총독부관보	
		4	1944년 4월 20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중학교(4년)	중등국어 남자용	1-8	1942년4월17일자~ 1944년9월20일자	조선총독부관보	
고등여학교 (4년)	중등국어 여자용	1-8	1942년4월17일자~ 1944년9월20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차 교육령기의 교과서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교과서들임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교과서의 수가 희박하다. 그 이유는 해방을 맞아 일제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 당시의 일본어 교과서를 일제히 소각하였기 때문이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다수의 학교가 불에 타 자료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등국어』의 남자용과 여자용은 새로이 편찬하지 않고 제3차 조선교육령기 말기에 편찬한 교과서를 일부 발행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 기사에 의하면 『중등국어』의 남자용과 여자용은 1942년 4월 17일에 각각 권3이 발행된 이후, 1942년 10월 13일에는 각각 권4, 1943년 10월 15일에는 각각 권6, 1944년 3월 29일에는 남자용 권7, 1944년 4월 20일에는 여자용 권7, 9월 20일에 각각 권8이 발행되고 1945년 4월 19일에 교과용서 권5-권8까지의 정가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학교는 전시체제 전환으로 군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어 새로이 발행된 교과서의 수가 많지 않고 기존의 교과서를 이어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국어독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

서관을 비롯하여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조선총독부관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시기 별로 사용된 교과서를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에 비해 중등교육 과정에 간이학교와 실업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 그 과정들을 위한 교과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과정인 간이학교와 실업학교가 활성화 된 이유는 일본의 '간이'와 '실용'이라는 식민지 교육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특히 당시 조선인들의 일반계 중등교육 확대 요구에 대한 억제와 대체수단으로 추진된 것이 실업교육과 간이학교 제도였으며, 당시에 실업학교와 실업보습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일제가 학력에 따른 고용, 임금상의 차별을 제도화 한 것에서 비롯한 결과로 보통학교 이후의 중등과정에 관한 실질적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본어를 확대 보급하고 초보적인 직업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간이학교를 위한 교과서도 발행되었다. 한편,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수업연한이 6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통학교 4년제 과정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통학교 4년제용 교과서가 발행되게 되었다. 이렇듯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학제가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과서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금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시기에 사용된 교과서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명숙(2010)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1) 한국교육사학회 pp.7-34
- 김순전(2010) 『국어독본 상,하』 제이앤씨
- 朴英淑(2000) 『福岡教育大学付属図書館蔵 普通学校国語読本』 粒粒舎
- 백순근(2003) 『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p.25
- 송숙정(2018)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의 중등교육 학제와 일본어 교육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78  
한일본문화학회 pp.5-22
- 윤종혁(2008)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변천 과정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총서 01 p.24
- 이승구·박봉배(2001)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1-5 재단  
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p.34
- 이혜영(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pp.374-550
- 허재영(2009)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편찬 실태」 『동양학』 4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43-64
- 日本語教育史研究会(1993) 「第二次大戦前・戦時期の日本語教育関係文献目録」 日本語教育史研究会

〈 要 旨 〉

日本統治下朝鮮總督府発行の国語読本に関する書誌学的考察

本稿は、日本統治期に朝鮮總督府が発行した国語読本の実体に迫るため、国立中央図書館と国会図書館をはじめ、各地に散在している資料を取り集め、朝鮮總督府の官報と東亞日報の記事を基に、時期別に教科書を分類した。その結果、すでに知られていることに比べ、中等教育過程における各種の学校と多数の教科書が存在したことが分かった。特に、正規過程ではない簡易学校と実業学校が活性化された理由として、日本の「簡易」と「実用」という植民地教育目的によるもので、そのための教科書も別に発行した事が分かる。特に、実業学校と実業補習学校は日本が学歴による雇用、賃金の差別を制度化したせいで、それを補うため普通学校以後の中等教育過程としての選択であ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一方、第2次朝鮮教育令により授業の年限が6年に変わったにも関わらず、大体の地域において普通学校が4年制編成になっていることを受け、普通学校4年制用の国語読本が発行されることになる。このように植民地朝鮮の特殊な状況に応じて、様々な教科書が朝鮮總督府によって発行された事が分かる。

論文分野：日本語教育

キーワード：朝鮮總督府、教科書発行、国語読本、簡易学校、実業学校

■ 송숙정(宋淑正)

중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suejoan@hanmail.net

- 投稿日： 2018년 10월 3일
- 審査開始： 2018년 10월 15일
- 審査完了： 2018년 11월 8일
- 掲載確定： 2018년 11월 14일